

천체 · 입자 · 우주과학 연구, 최대 5년간 매년 50억 받아

강다윤 기자 rkdekdbbs@khu.ac.kr

【국제】우리학교 천체·입자·우주과학 분야 연구가 대학기초연구소(G-LAMP) 사업에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최대 5년 동안 매년 50억 원 규모다.

G-LAMP 사업은 대학 연구소 관리 체계를 개편·운영하고 기초과학 분야 지식 창출과 거대 융복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이공계 기초연구 12대 분야다.

우리학교는 이중 ‘천체·입자·우주과학’ 분야를 신청해 지난 21일

예비 선정됐다. 교육부는 예비 선정 통보 후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선정 대학을 확정한다. 사업에 신규 선정되는 대학은 1단계로 3년 동안 매년 50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후 3차 연도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2년 추가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G-LAMP 사업에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에도 같은 분야로 사업에 지원했지만, 최종 선정은 무산됐다. 홍인기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처장은 “작년에 사업에 떨어지자마자 바로 다음 해 사업 신청을 준비했다”며 “연구소 정비 및 과학을 위한 의지를 보인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천체 · 입자 · 우주과학 분야 연구가 대학기초연구소(G-LAMP) 사업에 선정돼 정부로부터 최대 5년간 매년 50억 원 규모 지원을 받는다. (사진=천문대 제공)

우리학교가 천체·입자·우주과학 분야를 선정해 사업에 신청한 이유에 대해 홍 단장은 “우리학교 연구 분야와 융복합이 잘 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라며 “인공지능 기술, 우주 의학도 같이 결합해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타 대학 대비 경쟁력 있는 분야를 선정해야 하는데 천체·입자·우주과학 분야의 성과들이 뛰어났다”고 말했다.

홍 단장은 향후 5년 동안 연구 인프라 구축, 연구 성과 도출, 그리고 국제

공동 연구 실천을 큰 목표로 삼았다. 당장은 연구소 재정비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한다. 홍 단장은 “자체 평가 시스템에 부합하는 연구소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게 아니면 연구소를 축소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우주중점 연구소뿐만 아니라 이·공학 연구소도 지원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올해 말 또는 내년에는 우리학교 G-LAMP 사업 부서 및 사이트가 개설될 예정이다. 홍 단장은 “우리학교의 천체·입자·우주과학 분야가 경쟁력이 있는 것이 입증됐다”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연구 센터를 만들어 가라는 의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학과, 숏폼 애니메이션 인재육성 네이버웹툰과 협력 수업 열린다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국제】네이버웹툰과 협력한 ‘숏폼 애니메이션’ 수업이 개설된다. 2분 안쪽의 짧은 영상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학기 예술디자인대학 디지털콘텐츠학과 4학년 전공과목 ‘캡스톤디자인2’에서는 숏폼 애니메이션 특화 수업이 운영된다. 수강생은 숏폼 산업 동향과 애니메이션 제작 기초를 학습하고, 직접 작품을 제작한다. 디지털콘텐츠학과 김승현(애니메이션) 학과장은 “기본적인 애

니메이션 스토리보딩과 비주얼 디벨롭 과정 등 숏폼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한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것”이라 말했다.

‘블루오션’ 평가받는 ‘숏폼’ 수업 통해 산업 트렌드 취득

수업은 숏폼 형식에 특화된 콘텐츠 산업의 최근 흐름을 중심으로 다룬다. 가로 비율에 맞춰져 있던 그간의 콘텐츠 형식과 달리, 세로 비율의 숏폼 콘텐츠는 새로운 방식의 제작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해당 산업 트렌드와 알고리즘 이해도 필수

기에 시장분석 과정도 커리큘럼에 포함됐다.

김 학과장은 “소수의 인원이 짧은 시간에 사람들의 이목을 이끄는 ‘후킹’ 요소를 제작하는 기획력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캐릭터가 짧은 시간 노출되다 보니 롱폼 애니메이션보다 캐릭터 아이덴티티의 중요도가 높다”고 말했다. 완성작은 네이버웹툰 숏폼 애니메이션 플랫폼 ‘컷츠’에 공개된다. 컷츠는 네이버에서 선보인 자체 숏폼 애니메이션 플랫폼이다. 작품 소비에 따른 수익은 제작한 학생에게 돌아간다. 수강생은

종강 후에 우리학교와 MOU를 체결한 회사에서 숏폼 애니메이션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도 갖는다.

숏폼 인프라 · 인재 육성 주력 네이버 측 산학협력 제안도

숏폼 애니메이션 시장은 증가하는 투자와 관심에 비해 아직 생소한 분야로 ‘블루 오션’이라고 평가받는다. 이러한 새로운 시장 경향에 맞춰 우리학교뿐만 아니라 홍익대, 세종대 등 여러 대학에서 관련 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추세다.

디지털콘텐츠학과는 캡스톤디자

인 수업에 이어 이번 학기 숏폼 애니메이션 공모전을 개최한다. 대상 100만 원을 포함한 상금 480만 원을 네이버 웹툰으로부터 지원받는다. 오는 10월 16일에는 네이버웹툰 관계자가 우리학교를 방문해 컷츠 콘텐츠 제작설명회를 진행한다. 김 학과장은 “네이버웹툰 측에서 디지털콘텐츠학과의 성과와 교육과정이 숏폼 애니메이션 제작자 육성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먼저 산학협력 제안이 왔다”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학과는 현재 게임 회사인 ‘펄어비스’, 실감콘텐츠 전문 기업 ‘뉴작’ 등과 MOU를 체결한 상태다. 김 학과장은 “최근 메타버스, VR 등 신기술이 나오며 애니메이션 시장에서도 새로운 기술과의 접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추세”라며 “학생들이 컷츠 제작에 그치지 않고 애니메이션과 신기술을 경험해 더 다양한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대학주보



대학주보 카카오톡채널이 생성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고 경희대학교소식 받아보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 QR코드 스캔 → 채널 추가

kakaotalk

